

손흥민·이강인 띄우고 김민재 머리로...카타르 골 공식 되나

이탈리아 진출 김민재, 벌써 머리로만 2골
카타르 월드컵서 위력적인 득점 루트 기대
손흥민과 이강인, 소속팀서 세트피스 전담
이강인 외면했던 벤투, 이번엔 뽑을지 주목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마요르카)이 소속팀에서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괴물 수비수 김민재는 이적한 새 팀에서 연이어 헤더 골을 터뜨리고 있어 월드컵 본선에서 이들의 호흡이 기대된다. 이적생 김민재(나폴리)는 수비수임에도 머리로만 2골을 터뜨렸다. 김민재는 지난달 22일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몬차와 2022~23 이탈리아 세리아A 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동료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올린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시키며 팀의 4-0 완승에 힘을 보탰다. 이어 김민재는 이달 4일 세리아A 5라운드 라치오전에 선발로 출전해 전반 38분 1-1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었다. 이번에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코너킥을 올렸다. 김민재는 상대 수비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 타점 높은 헤더로 득점에 성공했다.

김민재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상황에 적극 가담해 '골 넣는 수비수'로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의 이 같은 발전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에도 희소식이다. 1골이 승패와 토너먼트 진출을 좌우하는 월드컵 본선에서 위력적인 세트피스는 큰 도움이 된다. 벤투호가 월드컵 직전까지 세트피스에 더욱 공을 들인다면 충분히 본선 무대에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세트피스가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김민재의 세트피스 골을 도움 선수들이 충분하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코너킥을 전담하고 있다. 손흥민은 양발을 다 쓸 수 있지만 코너킥에서는 주로 오른발을 쓰고 있다. 왼발잡이 이강인이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강인 역시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다. 이강



인은 주 무기인 왼발을 앞세워 리그 개막 후 1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손흥민과 이강인이 코너킥 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공을 올릴 경우 공격에 가담한 김민재에게 다양한 헤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명의 코너킥 키커는 상대팀에게 혼



란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관건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월드컵에 데려가느냐다. 벤투 감독은 지난해 3월25일 한일전(0-3 패) 이후 이강인을 외면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해당 포지션에 경쟁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강인을 뽑지 않고 있다.



벤투 감독이 생각을 바꿔 이강인을 승선시킬지가 주목된다. 벤투호는 오는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른다. 다음주에 발표될 소집 명단에 이강인의 이름이 있을지 축구팬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뉴스



김주형, PGA투어 신인상 후보에 올라

캐머런 영·사히스 티갈라와 경쟁
김주형(2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PGA는 6일(한국시간) 아널드 파머 어워드(신인상) 후보를 발표했다. 후보에는 김주형과 함께 캐머런 영, 사히스 티갈라(이상 미국)가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이번 시즌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고, 톱10에 차례로 진입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35위에 올랐

고, 세계랭킹은 21위이다. 하지만 강력한 신인상 후보는 영이다. 영은 우승이 한 차례도 없지만, 5번이나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디 오픈 챔피언십(2위), PGA 챔피언십(공동 3위) 등 큰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영의 페덱스컵 랭킹은 19위이다. 티갈라 역시 우승은 없고, 페덱스컵 랭킹은 28위이다. 신인상이 기준이 되는 페덱스컵 랭킹에서 김주형의 순위가 가장 낮다. 뉴스

국제스포츠 교육, 광주서 아시아 첫 개최

국제스포츠연맹과 글로벌 스포츠이벤트 현장에서 활동 중인 현지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제스포츠 지식 전수 프로그램이 아시아 최초로 광주에서 첫 문을 열었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기업 '스포티즘82'(대표 최지아)는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국제스포츠과학기술 대학원(AISTS)과 함께 '국제스포츠 지식전수 프로그램인 SEMOS KOREA'를 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스포츠대회 운영자들의 개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포츠 이벤트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헌연구에서 시작됐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담겼다. 국제스포츠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온 대표적인 스포츠교육기관 AISTS가 한국에서 처음 진행하는 교육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전문가들이 주제별 강사로 참석, 현장 경험

과 노하우를 들려주고 한국 교육 참가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국제스포츠 매카인 스위스 등에 가지 않더라도 국제스포츠계 정보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포츠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제스포츠에 관심 있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특징이다. SEMOS KOREA에서는 벤자민 코헨 국제도핑검사기구(ITA) 사무총장, 파울로 페이레라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사무국장, 타니아 브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레저시 총괄 등 국제 스포츠 무대 최전선에 있는 다양한 현장 전문가 15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보안과 안전, 등록 인증, 인력관리, 경기 및 메뉴 운영 등 국제스포츠기구와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업무를 통해 체득한 이론과 현장 실무의 주요 내용을 6주간 참가자들에게 두루 소개해 세계적인 스포츠 인재로서 성장 전망과 방법 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야구 9월 주말 우천취소 경기, 월요일에 편성

우천취소 경기 늘어남에 따라 월요일 경기 편성

이달 중 우천 취소되는 주말 경기는 휴식일인 월요일에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우천 취소 경기가 증가함에 따라 월요일 경기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토요일), 11일(일요일) 경기가 취

소된 경우 12일 오후 2시 경기로 편성한다. 17일(토요일), 18일(일요일) 경기가 취소되면 19일 오후 6시30분 경기로 치러진다. 해당 주말의 2경기가 모두 취소되면 한 경기는 월요일에 진행되고, 나머지 한 경기는 추후 편성 한다.

최근 프로야구는 장마와 태풍 한남도의 영향으로 우천 취소 경기가 크게 늘었다. 4월 2경기, 5월 1경기에 불과했던 우천 취소 경기는 6월 13경기, 7월 10경기로 늘었고, 8월에는 16경기가 비로 순연됐다. 우천 취소 경기가 가장 많은 구단은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로, 각각 12경기씩이 취소됐다. 뉴스

KBO 40년 역사상 최고의 '철인'은 누구?

1982년 출범한 KBO리그는 올해로 정확히 40번째 시즌을 진행중이다. 40년 동안 KBO 1군 무대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후 실재자가 없거나, 실력이 모자라 은퇴하는 선수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이런 냉혹한 프로 무대에서 십수년 또는 20년 이상 살아남은 선수들이 있다. 이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성으로 KBO리그 레전드 '철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최다 경기 출전 투수와 최다 이닝 투수는?

KBO리그 역대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선 투수는 한화 이글스의 정우람이다. 정우람은 통산 939경기에 출전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900경기 이상 등판한 선수는 정

선수는 LG 불펜투수 진해수이다. 진해수는 통산 757경기에 등판했고, 현재도 LG의 핵심 불펜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다이닝 투수는 한화 이글스의 송진우이다. 송진우는 21년간 672경기에 등판해 3003이닝을 소화했다. 통산 최다승(210승), 최다패(153패) 기록도 모두 송진우가 갖고 있다.

정민철(2394%이닝)과 이강철(2204%이닝)이 역대 최다이닝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는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450경기에 등판해 2133%이닝을 기록했다. 수 년간 부상만 없다면, 송진우에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투수이다.

최다 출전 투수 정우람·최다 이닝 송진우·최다 출전 타자 최다 안타 박용택...해외무대 포함시 이승엽·오승환 불세출

우람과 류택현(-901경기) 뿐이다.

정우람은 SSG 랜더스의 전신인 SK 와이번스 시절인 2008년 무려 85경기에 등판하는 등 12년 연속 50경기 이상 출장 기록을 갖고 있다. 올해 어깨 통증으로 10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언제든 볼펜에서 1이닝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투수이다. 정우람은 부상만 없다면 KBO 최초 1000경기 등판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는 투수이다.

메이저리그(MLB) 최다 등판 투수는 제시 오로스코(1252경기)이며, 일본은 이와세 히토시가 기록한 1002경기이다.

정우람, 류택현에 이어 가장 많은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투수는 조웅천(813경기), 가득염(800경기), 권혁(781경기), 임창용(760경기) 순이다.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등판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온 타자이다. 역대 2000경기 이상 출장한 타자는 총 16명밖에 없다.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온 타자는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이다. 강민호는 2082경기에 출전해 박용택의 기록을 넘보고 있다. 역대 두 번째 많은 타석수를 기록한 선수는 양준혁으로 8807타석이다. 박한이(8712타석)가 양준혁의 뒤를 잇고 있다. 역대 최다 안타 1위도 양준혁(2318안타)이 갖고 있다.

'라이온 킹' 이승엽은 KBO리그에서 15년간 1906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일본프로야구 8년 기록을 더하면 프로에서 출전한 경기수가 무려 2703경기에 이른다. 프로에서 친 홈런이 무려 626개(KBO 467홈런·일본프로야구 159홈런)나 된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피트 로즈이며, 무려 24시즌 동안 3562경기에 출장했다. 메이저리그에서 3000경기 이상 출장한 타자는 9명 뿐이다. 일본 최다 출장 타자는 다니시게 모토노부(3021경기)이다.

KBO리그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은 쌍방울 레이더스와 SK에서 뛰었던 최태원이 갖고 있다. 최태원은 1995년 4월23일 잠실 OB 베어스전부터 2002년 9월8일 문학 현대 유니콘스전까지 무려 1009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작성했다.

연속 경기 출장 기록 2위는 김형석(622경기)으로, 최태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